

익산서동축제 대단원... 성적표 'A'

'익산서동축제 2016'이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5월 29일 성공리에 폐막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익산서동축제 2016'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백제 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익산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3일간 서동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14만6천여명으로(2014년 5만여명) 추정되고, 경제유발효과는 100억원 추정으로 '제1회 블링블링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은 올해 서동축제 성공의 요인으로 서동(무왕)의 역사성을 재확인하고 요일별 스토리텔링을 기미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야간 경관 LED 등 전시 프로그램 강화 등 즐길 거리를 고루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익산 서동축제를 빛낸 프로그램들로 전국 유일의 서동선발대회등이 있다. 서동선발대회의 영예의 서동왕자는 강희웅(25)군이 선발됐고, 성총은 설종환(25)군, 계백장군은 김형환(24)군이, 인기상은 김규빈(24)군이 수상하였다. 선발대회 이후 서동

3일간 14만 6천여명 다녀가... 경제유발효과 100억 추정

왕자 강희웅군과 자매도시 경주에서 선발된 선화공주 윤은주(18)양의 즉위식이 28일 치러졌다.

무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행렬단을 재현한 프로그램인 '무왕즉위행차 퍼레이드'는 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무왕즉위 행차 퍼레이드 읍면동 1등은 금마면, 2등 여산면, 3등 동산동, 사회단체 1등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 2등 익산시 읍남기연합회 리틀시범단, 3등 '운초 오정숙 판소리 보존회'가 차지했다.

'서동요 어린이합창제'는 8팀이 실력을 겨루 '산유화'를 부른 익산모현초등학교가 1등을 차지했다. '서동선화주니어선발대회'는 130여명이 참여해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시민열린공연'은 서동무대에서 3일간 우리 소리, 기타 연주, 색소폰 오케스트라, 오카리나 앙상블, 운초 오정숙 판소리 보존회, 익산 기세배놀이, 익산 목발의 노래 등 대중가

요부터 클래식, 무형문화재 공연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공연 무대가 펼쳐졌고, 초등학생의 건강한 체력을 겨루는 '서동경연대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 합창제'가 종교 화합의 무대가 되었다.

익산시립예술단이 연출한 주제공연 '무왕의 꿈' 무왕의 스토리를 화려한 뮤지컬로 각색하여 수준 높은 뮤지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전문 DJ를 섭외, 현장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 '서동가면무도회',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스태프 투어 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용을 타고 백제 투어', '유물발굴체험', '백제의 복제' 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었다.

유물발굴체험장은 반짝 이벤트로 '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매일 펼쳐져 행운을 선물했다. '용을 타고 백제 투어'는 용모양의 버스를 타고 마한관을 거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 쌍릉,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 마지막 보석박물관까지 가는 백제투어로 버스 3대가 하루 12회 운영되었다.

부대프로그램으로 서동마테마공원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운행되는 '바룡열차', '서동마음식 테마존' '서동선화꽃마차', '서동문화체험', '서동선화 골든벨', '서동사생대회', '서동백일장', '서동청소년 가요제'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서동선화 사랑의 빛'을 주제로 LED 활용한 경관은 축제장의 밤을 아름답게 밝혀 데이트 족들의 명소로 떠올랐다. 1,300여명이 참여한 '청사초롱 소원지 달기'와 금마 주민들이 직접 만든 '한지등'이 서동축제장을 밝혔다.

28일 주한 외교사절 초청 익산 투어 행사에 앙골라, 방글라데시, 태국, 타지키스탄 등 4개국 대사를 포함 11개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서동축제장을 찾았다. 올해 서동축제는 '제1회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두 배로 높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서사무용극 '하늘연인' 정음 공연 '성황'

이달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서사 무용극 '하늘연인'의 첫 공연이 지난 28일 저녁 7시 아흔아홉집으로 유명한 산이면 김동수가곡(중요민속자료 제26호) 인근 전통예술체험공간인 '예가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람에는 김생기 시장과 정음시의회 우천규의장, 리승용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 200여명이 관람했다.

시가 이날 공연과 관련, 사업평가 및 환류를 위해 조사한 관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약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사)한옥마을사람들이 주관한 것으로, 기간 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펼쳐진다. 여름 휴가기간인 7월~8월과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는 금요일 저녁(7시)에도 공연된다.

'하늘연인'은 조선시대 대중 비인 정승왕후(정음 칠보 출신)의 비극적인 일생과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서사 무용극이다. 서사 무용극이라는 장르를 유지하면서 배우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담은 음악과 미디어 파사드(Media-Facade) 영상상을 도입해 아름다운 한옥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영상을 제공, 관객의 작품 이해와 재미를 더해준다.

입장료는 성인 2만원,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 1만5천원이며, 정음시민에게는 50%, 전북도민에게는 30% 특별 할인 될 예정이다(신분증 지참). 관람객에게는 한분 한분에게 색색의 고명이 얹어진 국수와 정음 자생차가 놓인 소박한 소반(상)이 제공된다.

또한, 이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인견 천연염색 속피 및 조각상보도 티켓과 연계해 최대 5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육선 및 G마켓 등에서의 티켓 할인이 가능하고 전북관광패스카드와 문화누리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티켓 관련 문의는 예가인(☎063.532-1248)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김도현, 판소리 명창부 장원 '대통령상'

국악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재목으로 김도현(만34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사진)이 선정됐다.

김도현 씨는 30일 경기전에서 열린 2016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적벽가 중 조자룡이 활 쏘는 대목'을 열창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놈의 상아 어디 갔다 왔느냐"는 판소리로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 소리하면, 김도현이 생각나게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한국 전통에 기반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통국악은 굽힘은 매력이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 앙악에서 국악으로 전공을 전향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국악인으로의 출발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선 대회에는 판소리 명창부 14명, 농악부 8팀(328명), 기악부 15명, 무용부 17명, 민요부 17명, 가야금 병창부 10명, 판소리일반부 12명, 시조부 36명, 명고수부 7명, 궁도 등이 출전 경연을 펼쳤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판소리 명창 부문=장원 김도현(전북 전주), 차상 최영인(전북 익산), 차하 정은혜(서울 서대문구)

▲가야금 병창 부문=장원 김다정(충남 논산), 차상 이정아(서울 성동구), 차하 송란(광주 북구)

▲기악 부문=장원 이광민(인천 연수구), 차상 김호진(전북 전주), 차하 송가현(서울 성동구), ▲무용 부문=장원 김민중(서울 관악구),



차상 장민하(서울 서초구), 차하 박성진(서울 성동구)

▲민요 부문=장원 김수연(경북 경주), 차상 장민지(서울 서대문구), 차하 김영안(경기도 남양주)

▲농악 부문=장원 구미농악단(박정철 외 41명), 차상 화성두레농악보존회(안병선 외 47명), 차하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강윤제 외 45명)

▲판소리 일반부 =장원 박수범(서울 관악구), 차상 정승준(서울 성북구), 차하 류기양(서울 강남구)

▲명고수=장원 손주현(전북 전주), 차상 김동근(광주 북구), 차하 주정욱(전북 전주)

▲시조 부문=장원 천복임(광주시 동구), 차상 이종재(서울 영등포구), 차하 이현택(서울 송파구)

/정해은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전주예고 오상원 군 장원 차지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국악 동량들을 발굴하는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판소리부 장원은 수궁가 중 '용왕탄식대목'을 부른 오상원(전주예고 2학년·사진)군이 차지했다.



오상원 군은 수상 소감에서 "소리의 재미를 가르쳐 주신 방성춘 선생님께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 국악을 처음 접한 오군은 그 중 판소리를 듣고 소리에 푹 빠져 중학교 1학년 때 장문의 명창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2014년 여수진남국악경연대회 장려상, 2014년 구례송담관소리경연대회 전남도교육감상, 2015년 인방울국악경연대회 장려상, 2015년 서봉국악경연대회 교육감상, 2015년 구미국악전국국악경연대회 장려상, 2015년 정읍청소년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며 예비 국악인으로의 꿈을 키워 왔다.

오상원 군은 "앞으로도 열심히 소리공부에 매진해 전 세계에 우리의 모든 소리를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는 판소리 16명, 농악부 8팀(323명), 관악부 16명, 현악부 23명, 무용부 16명, 민요부 13명, 가야금 병창부 25

명, 시조부 24명, 어린이판소리부 20명 등 총 9개 부문에 걸쳐 161팀 476명이 출전 경연을 펼쳤다.

이날 본선 경연에 이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야금 병창 부문=장원 최민경(전통예고), 차상 하태현(전통예고), 차하 이주아(광주예고)

▲관악 부문=장원 강병하(전통예고), 차상 이진희(전통예고), 차하 이현정(국악고)

▲민요 부문=장원 심은서(봉의고), 차상 남경우(전통예고), 차하 정연민(봉의고)

▲현악 부문=장원 김수진(전통예고), 차상 차해담(국악고), 차하 정예림(국악고)

▲무용 부문=장원 박은영(조선대여고), 차상 이예진(전주사대부고), 차하 이현지(전주사대부고)

▲판소리 부문=장원 오상원(전주예고), 차상 소정(전통문화고), 차하 양가림(전통문화고)

▲농악 부문=장원 국립전통예고, 차상 계성초 풍물부 '신바람', 차하 공주생명과학고

▲어린이판소리 부문=장원은 황시원(인천마장초 5년), 차상 이도경(신동초 6년), 차하 김나현(중대부고 3년)

▲시조 부문=장원 박담윤(전통예고), 차상 허인정(전통예고), 차하 강지안(경포초)

/정해은 기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R&D 과제 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요조사분야는 문화콘텐츠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저작권, 서비스 연구개발 등이다. 산업계와 학계, 관계기관,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분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3D 등 문화기술 개발 ▲전통문화·문화예술·인문사회 등 국민 체감형 기술 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영역간 융합 기술 개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될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http://ctrl.kocca.kr)의 '2017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작성 후 전자우편(cmd@kocc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수요는 과제 적합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 2017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한다.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사업에는 8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연 1회 시행했던 수요조사를 상시로 하고 지역과 장르별로 '찾아가는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성주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31일>

▷쥐띠
46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된다.
60년생: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운.
72년생: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조력을 얻을 수 있겠다.
84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라.

▷소띠
49년생: 고집은 금물.
61년생: 행동하고 배운 만큼 돌아오는 운이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
85년생: 자신이 정한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신뢰를 잃어버리기 쉽다.

▷호랑이띠
50년생: 위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2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74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86년생: 순간의 감정을 억눌러라.

▷토끼띠
51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해야.
63년생: 경쟁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75년생: 기존의 해오던 방식으로 현상유지 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변동은 혼란만 야기한다.
87년생: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으나 일적으로는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자신의 주변에 참모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64년생: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76년생: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운.
8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라.

▷뱀띠
53년생: 내실을 집중하라.
65년생: 아지는 길한 운이 아니니 금전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라.
77년생: 사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운.
89년생: 주변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아야 편안한 운이다.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른다.
66년생: 방심은 금물.
78년생: 사소한 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운.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띠
55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
67년생: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라.
79년생: 좋은 일 허락다 빨랐는 격.
91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나 큰일은 불리하다.

▷원숭이띠
56년생: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할 시기.
68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80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92년생: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하겠다.

▷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일이 빛나갈 수 있다.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81년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때.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개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린다.
58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은 좋으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명심하라.
70년생: 아랫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82년생: 조력자를 얻을 수 있는 운.

▷돼지띠
47년생: 말과 행동을 할 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구별해서 해야 하는 운.
59년생: 타인으로부터 피해 받을 수 있는 운.
71년생: 매사 요령 있는 대처가 필요한 운이다.
8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하라.